시진핑 중국 국가주석(왼쪽)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. 연합뉴스러시아 타스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'올림픽 휴전'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.앞서 시 주석은 최근 정상 회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해 여름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 휴전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. 이어 시 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도 올림픽 휴전을 요청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.푸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헤이룽장성 성도 하얼빈을 찾아 제8회 러시아-중국 엑스포 개막식과 제4회 러시아-중국 지역 간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.